

여수시 쌍봉동, 폭염 대비 취약계층 보호 총력

폭염 해제까지 취약계층 집중 관리…민·관 안전망 224명 가동

여수시 쌍봉동(동장 김상욱)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홀몸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폭염 대비 취약계층 안부 확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폭염특보 해제 시까지 집중 안전관리에 나선다.

쌍봉동은 복지대상자와 폭염취약가구 등 1,275가구 1,712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복지업무 담당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어르신지킴이단 등 224명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홀몸어르신 354명과 고독사 위험군 10명은 주 1회 이상 집중 관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은 생활지원사와 자원봉사자가 주 2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안부 확인과 함께 ▲폭염 행동요령 안내 ▲충분한 수분 섭취 ▲한낮 야외활동 자제 ▲무더위쉼터 이용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요령 등을 함께 안내해 폭염 피해 예방에도 힘을 기울인다.

아울러 폭염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부 확인 결과와 피해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는 등 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해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상욱 쌍봉동장은 "폭염은 홀몸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인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통해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안부 확인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쌍봉동은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냉방기기 작동 여부와 주거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냉방시설이 부족하거나 고장 난 가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도 수시로 확인해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폭염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마을 방송과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한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유지할 방침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안부 확인 과정에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복지대상자와 폭염취약가구 등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남해안 최초 저어새 번식...순천만에서 확인돼

순천시(시장 순훈모)는 순천만 장구섬에서 남해안 최초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저어새의 번식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장구섬에서 저어새 동지 15개를 확인했으며, 알을 품거나 새끼를 기르는 저어새의 모습도 포착했다. 최근 순천만 역간척 복원습지에서도 저어새 50여 마리가 관찰되면서, 순천만 갯벌 일원이 저어새의 번식지이자 안정적인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만갯벌이 주변 내륙습지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저어새의 번식과 먹이활동, 휴식에 필요한 안정적인 서식 환경이 된 결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앞으로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장구섬의 저어새 번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번식지 주변의 위협요인을 점검하는 등 신규 번식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민선9기 첫 ‘찾아가는 소통시장실’ 운영... 현장에서 답 찾는다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지난 5일 민선9기 첫 ‘찾아가는 소통시장실’을 운영하고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직결된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 6곳을 찾아 현안을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찾아가는 소통시장실’은 기존의 ‘찾아오는 민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날 박성현 시장은 ▲육룡 추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진월면 차량 전복에 따른 화학물질 누출사고 현장 ▲윤동주·정병욱 문학관 건립사업 ▲성황근린공원 숲 놀이터 정비사업 ▲마동근린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 등 6개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첫 방문지인 육룡 추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급경사지 지정 경위와 재해위험도 평가 절차, 폐널옹벽 설치 등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이 사업은 낙석과 사면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박 시장은 공사 중 낙석과 토사 유실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와 폭염 대비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이어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을 찾아 주요 공사가 완료된 하천 구간과 시설물 관리 상태, 남은 행정 절차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생태하천 복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 정비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곡성읍·옥과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곡성군은 지난 4일 곡성읍, 옥과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무원, 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석곡면, 죽곡면 주민자치회 워크숍에 이어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 의제 발굴 및 실행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충남 흥성군 장곡면 주민자치회를 방문해 주민총회 및 찾아가는 마을총회 운영, 자치분과별 의제 발굴 실행 등 주민 주도 다양한 주민자치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한 마을중간센터 조성, 장곡 맥가이버(집수리), 마을의제 해결을 위한 밥상매니저, 마을수

선집, 장곡빨래방, 장곡분식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자치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충남 거점농장인 행복농장협동조합에서 직접 재배한 애플민트를 활용한 모히또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위원들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올해 12기를 맞이한 곡성읍, 옥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랜 주민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위해 학습모임과 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하며 주민자치 활성화에 열정을 더하고 있다.

곡성군은 이번 워크숍에서 공유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구례소방서, 폭염 대응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활동 실시

구례소방서(서장 한만조)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례군 관내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폭염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상황과 냉방기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구례소방서는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생수와 과일 등 폭염 극복을 위한 물품을 전달해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하

며,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활동과 농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지러움, 두통,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몸을 식히고,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것을 안내했다.

한만조 구례소방서장은 "폭염은 누구에게나 위협하지만 특히 어르신과 야외활동이 많은 주민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무더위쉼터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와 예방 홍보를 강화해 군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선섭 기자



NAJU 우리농가를 살리는 착한 소비!



오색마을 [나주시 쇼핑물]